

‘자기와 자기 의식’의 철학적 관점에서 본 뫼비우스의 ‘잉칼’분석

Moebius' L'INCAL Analysis of 'self' and 'self-consciousness' in philosophic viewpoint

홍영옥, 이원석

공주 대학교 대학원 만화 애니메이션

Hong yong ok, lee won-seok

Department of Animation Graduate School Kong Ju University

요약

뫼비우스의 ‘잉칼’을 ‘자기’와 ‘자기의식’의 철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연구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그래픽 노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뫼비우스의 ‘잉칼’을 연구, 분석한다. 광범위한 이론 중 ‘잉칼’은 ‘자기’와 ‘자기의식’의 융, 라캉, 카오스 이론의 개론적 부분으로 한정한다. 철학이 담긴 만화는 어른들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만화를 다양한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만화문화를 열어 나가는데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Abstract

Moebius' L'INCAL Analysis of 'self' and 'self-consciousness' in philosophic viewpoint. In this research, I studies and analyzed Mobius' L'INCAL who had affected revitalization of Europe and America's genre cartoon and graphic novel. Among the L'INCAL. I selected some parts which are related to 'self' and 'self-consciousness' of 융(Jung), 라캉(Lacan), chaos theory Because it is too extensive for me to do this. Cartoons filled with philosophy is likely to have a possibility to be seen by adult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make a coner stone which all the classes can enjoy various cultures with.

I. 서론

일본과 한국만화의 흐름과는 다르게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래픽 노블이라는 장르의 만화가 발전해 왔는데, 사회적 이슈와 철학적 내용이 담긴 잘 짜여진 스토리에 풍부한 그래픽을 보여준다. ‘잉칼’도 그 중 한 작품으로 핵전쟁으로 황폐해진 지구에서 우주의 운명을 좌우할 ‘잉칼’이라는 물질을 손에 넣은 탐정 존디폴의 모험담을 그린 만화이다. 그러나 ‘잉칼’을 단지 SF 만화만으로 설명하기엔 내면에 숨겨진 철학적 의미들이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잉칼’ 속에 내재해 있는 철학적 사고의 흐름들을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1. 연구의 목적

철학이 담긴 만화는 어른들이 볼 수 있는 만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다양한 만화를 다양한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만화문화를 열어나가는데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의 범위

작품 ‘잉칼’속에 내재된 ‘자기와 자기의식’에 관한 철학 사상 중 융, 라캉, 카오스 이론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문헌들은 제

외 하겠다. 또한 융, 라캉, 카오스 이론도 너무나 광범위 하므로, 작품과 가장 잘 접목되는 개론적 부분들을 다룸을 양지하기 바란다.

II. 뫼비우스의 ‘잉칼’ 분석

1. ‘자기와 자기의식’ 이론

‘자기’란 의미는 게르만에서 유래된 ‘seif’와 라틴어에서 나온 ‘ego’를 병용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self’는 객체적인 뜻을 함축하는 것으로 ‘자기’라고 하고, ‘ego’는 주체적인 뜻을 담은 ‘자아’라고 구별할 수 있다.

‘self’를 ‘자기’로 표기하기 때문에 ‘자기의식’영어의 ‘self-consciousness’라 할 수 있다.¹⁾ 자아가 의식 영역의 중심인데 비해서, ‘자기-self’는 의식과 무의식 -그것은 개인적 무의식 보다 더 깊은 집합적 무의식 층으로 -의 영역인 만큼, 전체의 중심이다. 즉, 자기관 쉽게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해도 독자성을 가진 우리들 각자의 중심을 이루는 핵이다. 그것은 모든 경험을 통해서 동일한 상태로 있으며 자기의 근원은 생의 적극적 추구이다. 자기라는 의식이 생긴 뒤에 나타나

1) 中村元 「自己の探求」

는 자기의식의 측면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의식이다. 2) 이런 ‘자기와 자기의식’의 흐름이 작품 ‘잉칼’ 속에 내재해 있는데 이는 추후 각 장을 통해서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2. ‘잉칼’ 분석

작품 ‘잉칼’은 조도로프스키의 밀교적, 과학적, 신비주의적, 판타지적 카테고리과 피비우스의 세밀한 그림체, 날카롭고 압도적인 펜선,ダイ나믹한 화면 분할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내어 웅장한 스케일이 돋보이는 SF만화이다. 대개 칸과 칸 사이의 여백에서 독자들은 상상하는데 칸의 운용에 있어서도 매우 유연한 솜씨를 보여준다. 드로잉과 색채감각은 난색계열의 원색을 사용하여,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배어나와 환상적이며, 각 인물의 표정 처리가 실감나고 사실적이어서 SF 영화를 보는 듯하다. 말풍선은 사각으로 처리, 비교적 긴 대사를 쓰고 있어 난해 하지만 볼수록 철학적 깊이가 느껴지는 스토리가 탄탄한 작품이다.

2.1 캐릭터의 성격과 철학적 개념



▶▶ 그림 1. ‘잉칼’ 주요 인물 ; 존 디폴과 디포, 아니마, 메타 바롱, 솔린, 타나타, 킬

잉칼은 등장인물-주요인물-들에게 각각의 철학적 상징을 맡기면서 이야기를 전개시킨다. 즉, ‘존디폴’은 이름 - John the fool - 자체에 바보라는 뜻을 담고 있듯이 대의에 목표를 두는 전통적인 영웅과는 다르다. 이런 그가 잉칼을 갖게 됨으로써 극적 상황에 직면하나 잉칼의 도움으로 힘을 발휘하는 반영웅이 된다. 즉 ‘자기’를 ‘개성화’시킴으로 주체성을 찾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존디폴의 애완용 날짐승인 콘크리트 새 ‘디포’는 순발력 있고 현명한 판단력을 지녀 어리석고 우유부단한 존디폴을 늘 도와준다. 즉, 여섯 번째 감각-영감-적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존재이며, ‘하늘’을 상징한다. 또한 존디폴이 잉칼을 건네준 ‘아니마’는 완벽한 양성구유체인 솔린의 어머니이자 존디폴이 사랑하는 여인으로, 침착하며 신비적인 카리스마를 지녔다. 라틴어로 ‘영혼’ ‘생명’을 뜻하며, ‘아니마’는 무의식 속의 여성적 이미지라고 융은 말한다. 산의 호수 아모크 본부의 권력자 ‘타나타’는 아니마와 자매지간으로 잉칼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품는 실천적인 권력자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포기할 줄도 아는 단호함을 지녔다. ‘타나

타’는 ‘죽음’을 뜻하는 그리스어 ‘타나토스’를 상징한다. 타나타의 충실한 하수인 검은 개 ‘킬’은 ‘땅’을 상징하는데, 과시적 탐미주의자로서 기본파이나 타나타에 대해서만큼은 충성스럽다. 최고의 전사 ‘메타바롱’은 객관적 세계, 대의에 대해 전력투구하는 영웅적 인물이다. 이성적이며, 헌신적이고, 한치의 허점도 보이지 않으나, 양아들 솔린을 구하기 위해 모험에 개입하고, 잉칼의 대의에 헌신함으로써 ‘아폴론적 완벽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솔린’은 어리지만 대단히 깊고 강한 감정을 소유하고 있어서 악에 대해 폭발할 때는 폭풍이 몰아칠 정도로 큰 힘을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여섯명으로 생명의 상징인 물 분자의 구조를 나타낸다. 이들은 다시 들쭉 날 수 있는데, 아니마는 타나타와 생명과 죽음을, 존디폴은 메타 바롱과 함께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 적인 것을, 그리고 디포와 킬은 하늘과 땅을 나눠 갖는다. 이는 기호학의 이원론적-이항대립-원리로 해석 되는데, 각각의 합은 전체를 의미한다. 그 전체적 중심부에 양자를 통합하는 양성 구유체로서의 솔린-태양 solt +달 lune-이 있다. 이를 다시 크게 두 무리로 나누면 ‘아니마-메타 바롱-디포’로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타나타-존디폴-킬’이 된다. 이들은 중심부에 본질적 존재 솔린을 두고 합쳐짐으로서 별 우주선을 만들고 -빛의 잉칼과 어둠의 잉칼 인 두 피라미드의 합체 ; 콤플렉스의 극복을 통해 자기(희생:자기포기)를 찾아-하나로 융합하여 오르(순수)를 경험하는 순간에 다다른다.

2.2 융의 ‘자기와 개성화의 길’

‘자아’는 묻는다. ‘존 디폴 너는 누구인가?’ 부리 인간으로부터 받은 잉칼은 존 디폴을 토막내고, 진정한 ‘자기’는 누구인가를 묻고 있다. ‘자아’는 ‘자기’를 발견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자아’는 의식과 분별의 세계이지만 ‘자기’는 우리의 생각의 빛이 닿지 않는 어둠의 세계이며 무의식의 밑바닥 깊이 놓여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식으로서의 ‘자아’는 무의식으로서의 ‘자기’를 어떻게 지각할 수 있는가. 그것은 꿈이다. 꿈은 무의식의 활동이 우리의 인식 속에 지각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잉칼은 말한다. ‘꿈을 꾀라. 꿈은 생존의 길이다.’ 꿈은 자아와 자기가 만나는 접착점이다. 나를 넘어선 세계와 나의 세계는 꿈을 통하여 이어진다. 그래서 융은, 꿈이야말로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한다.3) 융에게 있어 ‘자기실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아’가 무의식의 바다 깊은 곳에 있는-산 호수의 소용돌이- ‘자기’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그 원형의 세계에서 뽑어내는 진실한 목소리를 감지하는 것이다. 융에게 있어서 삶은 자아가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인 것이다. 하지만 중심으로 향해

2) 이 만갑. ‘자기와 자기의식’. 소화. 2002

3) <http://theology.co.kr/article/jung.html>

가는 과정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다. 특히 상징과 신화의 언어를 상실한 현대인일수록 자아가 자기를 찾는 여정은 그만큼 힘들어 지는데 이러한 상실의 시대를 가로질러 어둠의 세계인 자기의 세계를 빛의 세계인 자아의 세계로 끌어 올리는 과정이 ‘자기실현’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⁴⁾ 작품에서는 사이코 쥬와 쓰레기 사막의 통과로 표현된 것이 상실의 시대이다. 공격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면 할수록 커지고 붙어나는 쥬를 잉칼은 두려움, 사나운 마음을 몰아내고 마음을 비움으로 다스리라고 명령한다. 자신을 추수려 싸이코 쥬들을 다스리고, 쓰레기 사막을 통과하여 지구 중심으로 통하는 빛의 문을 여는 조건은 내 생각을 지우고 공포와 증오심등의 일체의 감정-솔린은 아니마와 화해하고, 타나타는 아니마와 화해해야 하며, 개머리 킬은 존 디폴과 화해해야한다-을 없애라는 것이었다. 이는 자아의 어두운 면인 그림자를 극복-감정- 함이다. 거울을 통과하고 수정의 숲을 지나 변신의 문을 여는 일곱 열쇠는 자신 안에 있는 관념을 지워 버리고, 본질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비로소 ‘자기’를 여는 열쇠로서 내안에 다른 무의식의 세계, ‘자기’로의 길을 드러낸다. 빛과 어둠의 잉칼이 합쳐져-클라이막스-별 우주선이 된 존 디폴 일행은 그 후 해파리의 텔레파시를 통해 지옥행성 아쿠아엔드로 가고 그곳에서 지배자 임페로라트리스와 라이모 일행을 만난다. 그 후 잉칼은 암흑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꿈임을 강조하며 꿈꾸라 한다. 꿈이란 자기와 자기가 체험하는 두 지대의 합으로 꿈은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중심의 소리이다. 따라서 모두를 꿈꾸게 한 후 존 디폴 일행은 자기의 형상화 세계로 -자기의 상징 : 황금성 모양의 만다라- 들어간다. 자기의 형상화 세계, 심연은 존재를 망각케 한다. 하지만 존재는 심연에 앞선다. 오히려 존재는 어둠을 품는다. 심연과 어둠에 있는 존재는 비록 설명되지 않을 지언정, 자명한 존재이다. 이 어둠을 옴은 악의 현상학으로 보았는데, 이에는 콤플렉스, 억압, 투사, 신경증이 자리한다. 형상이 있는 꿈에서 존 디폴 일행들은 콤플렉스를 극복했다. 두 번째 형상이 없는 꿈에서 동료들의 희생-자기포기:외부상황으로부터 눈을 돌려 비로소 자기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집중시킴-이 이루어진다. 즉 ‘개성화’과정은 자기를 페르조나가 덧씌워 놓은 잘못된 껍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무의식으로부터 파생된 암시력으로부터 해방 시켜준다. 그때 자아의 안목은 넓어지고, 무의식적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본성에서 나오는 자발적 과정, 자기에 대한 성찰은 우리의 내면을 원초적인 힘으로 이끌어 간다. 비로소 존 디폴은 암흑 속에 내재해 있는 빛에 닿아 그곳에서 오르;ORH를 만난다. 오르는 자신이 늙은 빛으로 시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보내진 본질적 실체라고 말한다. 또, 암흑은 ‘인간의 마음에 쌓여 나-오르-를 가렸던

부정적인 힘이지만 빛 이전의 나’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본성이며,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신적인 본성-오르-’인 것이다. 즉 무의식에는 신적인 인간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인간 정신의 깊은 곳에 유쾌 되어 있고 감추어져 있으며, 잘 보호되어 있으면서 추상적인 상징으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의식의 기반이 되며 의식이 궁극적으로 추구해 가는 목표가 된다. 그래서 옴은 결국, 인간의 삶은 이 전체성, 즉 자기의 실현인 것인데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길’인 것이다.⁵⁾

[표] 형상의 꿈, 형상이 없는 꿈

꿈	형상의 꿈		형상이 없는 꿈 : 다이어트	존 디폴 (암흑의 핵심 통과)	ORH (오르) 암흑의 핵 안에 있는 빛
	인물	극복			
인물	콤플렉스	극복	희생 (자기 포기)		
메타바롱	쇠로된 귀	아름다운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		
타나타	살기어린 폭력성(악마)	창조적 에너지이다.	→		
킬	동물성(아귀)	현실을 제어하는 힘이다.	→		
솔린	늙음에 대한 두려움	덧없는 개인성에서 영원한 전체성의 길	→		
아니마	부패	새로운 삶의 씨-영원성에 도달	→		
디포	피(퇴행)	세계를 풍요롭게	→		

2.3 라캉의 ‘거울 단계’ 이론

라캉의 거울단계이론은 거울에 비친 자기의 이미지건, 다른 사람의 이미지건 상관없이 자기 외부의 어느 한 가지 이미지와 자신을 동일시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 원인은 각 개인의 내부의 갈등에서 파생된 것이며, 그 갈등은 상대방과의 동일화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동작기능의 습득과 공간 및 운동이라는 인간적인 세계로의 진입은 근본적으로 소외라는 댓가를 치른 후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동일화가 일어나는 영역을 ‘상상계’라 불렀다.⁶⁾ 라캉은 영상들이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간에 육체의 영상이 환상이나 꿈속에서 거울이란 장치의 특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면 영상들에게 있어 거울 이미지는 가시적인 세계로 들어서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⁷⁾ ‘잉칼’에서는 지구 중심의 문을 통과한 존 디폴 일행들에게 아라트들이 거울을 통과하도록 하며 “거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거울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

5) 김 성민, ‘옴의 심리학과 종교’, 동명사, 1998.
 6) 다이안 리더, ‘라캉’, 긴영사, 1995
 7) http://blog.daum.net/printView.html?articlePrint_10869883

4) http://theology.co.kr/article/jung.html

에서 자기와 타자-거울에 비친 자기 이미지-는 구별되지 않는 하나이다. 이 영역에서 차이나 구별은 없고 두 항은 보완적이다. 따라서 각 항은 다른 항에게 그것이 결여하고 있는 것을 준다. 그래서 각자는 타인 안에 있는 결핍을 채워준다고 상상한다. 나와 너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이고 너는 나인 것이다.

‘상상계’가 조화로운 전체인데 반해서 ‘상징계’는 차이가 작용하는 영역이다.⁸⁾ 자아가 형성될 수 없었던 ‘상상계’와는 달리 ‘상징계’에서는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상징계로의 진입은 희생을 필요로 한다. 이때 어머니라는 존재 외에 아버지라는 금기를 받아들임으로서 상징계로의 진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78조나 되는 지되프들이 사랑받지 못한 불행의 원인이 아버지에게서 비롯된다고 증오했으나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적 남근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기표에 자신의 존재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주체화의 과정인 동시에 남성적 주체의 탄생과정-상징적 남근의 거세에 복종하지 않는 하나의 예외(원초적아버지):존 디폴 -인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거세되지 않은 출발점을 가져야 한다. 이 의미를 ‘아버지의 이름’이라 부르는데 이는 부성의 상징적 측면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자면 어머니라는 존재는 자신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별다른 정의 없이 그 존재를 이해했으나 이제 아버지라는 외부의 금기를 받아들이고 사회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주체는 그 스스로가 부여된 대타자 한가운데에 기입된 스스로의 조건을 직시, 반성한다. 이런 반성을 통해 주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주체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인류의 본격적이고 실존적 능동적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 시조 여왕이 자식들인 아들들-지되프-을 미워했던 것을 반성하자, 각각의 지되프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받아들이며, 증오했고 미워했던 자신들의 마음들을 반성한다. 시조 여왕은 말한다. “이제 우리는 다함께 잉칼의 신성함에 닿을 수 있게 되었다. 너희의 아버지-존 디폴-가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다.” 이로서 주체가 상징적 질서 속에서 인정받고 일종의 정체성을 갖는 게 가능하게 된 것이다.⁹⁾

2.4 카오스 이론에 나타난 ‘자기 조직화’

카오스란 말을 번역하면 ‘혼돈’ ‘무질서’ ‘대혼란’이 되는데, 최근에는 ‘복잡성의 과학’ 혹은 ‘비선형 과학’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카오스를 이해하려면 먼저 복잡계 이론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모델이 도저히 파악 안 되는 복잡하면서도 일정한 패턴을 가진다는 것을 설명 하는 이론으로 비단 과학 뿐 만 아니라 인간, 자연현상 등 모든 곳에 다 존재한다.

작품 ‘잉칼’에서는 복잡계 이론중 카오스의 ‘프랙탈’ ‘나비효과’ ‘자기 조직화’의 접목으로 고찰 해 보겠다. 과학에서의 프랙탈의 응용을 들자면, 입체상을 이용하여 작은 일부분을 전체로 복원하는 홀로그래피가 사용되는데, 작품에서는 늙은 캣크 여사가 홀로그래피를 이용하여 미모의 여성으로 둔갑하고, 타나타가 솔윈의 홀로그래피를 양아버지 메타바롱에게 보여주는 것, 또 임페로라트리스가 홀로그래피를 이용해서 죽음을 모면하는 장면들에 나타난다. 또하나 자기닮음과 순환성이 프랙탈 구조의 특징인데¹⁰⁾ 부리인간 제국에서 시조여왕의 마지막 번째-78조 짜-알도 깨어나면서 아버지인 존 디폴과 똑같이 술과 인조창녀를 찾는 부분에 나타난다.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간사에 존재하고 있는 프랙탈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닳은꼴이 본질적인 동일성을 갖는 것이다. 78조의 지되프들이 모두 존 디폴을 닮아있고 그 안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체의 공통점-본질-을 지녔기 때문에 지되프들은 존 디폴을 받아들여 꿈 꿀 수 있었다. 프랙탈 구조를 통해 집단의 구성원들-지되프-은 공동의 가치, 비전-꿈길-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초기 조건에의 민감한 의존성, 곧 작은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나비효과”라 한다. 작품 ‘잉칼’에서는 쓰레기 폭풍이 일어나는 현상, 거울을 통과 하여 수정의 숲을 지날 때 디포의 날개가 약간만 스쳤는데도 수정의 음악들이 살아나 모두를 잠들게 하는 부분, 또한 거울을 부수고 수정의 숲을 마구 지나는 네크로 로봇에 의해 지구 중심의 심장부에 있는 쓰레기들이 폭발하여 우물모시로 올라오는 장면들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한 순간에 발생한 일이 다음순간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나비효과를 사용하여 풍부한 레퍼토리를 가미, 스펙터클한 구조로 작품에 흥미를 더해준다.

또 하나 시간 축에서 나타나는 프랙탈은 역사의 되풀이 과정, 다시 본질로 시작해야 함을 의미한다. 복잡한 세상에 만연해 있는 병든 프랙탈-지되프-구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자기 조절 능력, 즉 ‘개방계’에서의 ‘자기 조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 조직화란 카오스 내에서의 무작위적 행동과 질서의 자발적 출현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즉 복잡계에서 ‘의식’이라는 ‘순수한 질서’가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해 지는 것이 바로 카오스 계의 본질적 특성 때문이다. 이 자기 조직화는 생명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의식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현상으로서 대두되고 있다. 오르는 존 디폴이 새로운 우주의 창조자가 되고 증인이 되며 이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시작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자기 성찰을 통한 나선구조를 확대해 나가라는 것이다. 여기서 끊임없이 프랙탈화 하지 못하는 운동

8) 온라인 문예-인문교육 포털.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9) 김 성민. ‘음의 심리학과 종교’. 동명사. 1998.

10) http://www.jabo.co.kr/sub_read.html?section=section1§ion2=&ui...

은 ‘멈춤’을 뜻한다. 프랙탈이야말로 역동성이요, 자기 혁신인 것이기 때문이다.11)

III.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잉칼’은 탐정 존디풀이 잉칼을 갖게 된 후 겪는 SF모험 이야기지만, 결국은 중심, 기저에 있는 ‘자기와 자기의식’에 관한 철학을 내포한 작품이다. 다양성과 물질문명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갈등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질적 존재인 자기를 찾아 개성화를 통한 자기실현, 나아가 인류가 화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곳은 그늘에 가리워진 암흑의 세계가 아니라 빛의 세계이다. 그리고 중심의 세계이다. 꿈을 통하여 신화를 통하여 상징을 통하여 자기의 세계에서 자아의 세계를 향해 시작해야 함을 오르는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 만화도 신화, 구비 문학 등에 관련된 문학적 상상력을 지니고, 현시대를 이해하고 반영하는 이슈를 던지는 지적이고 인문적인 사유능력을 지녀야 한다. 이에 ‘잉칼’은 SF만화로서 스펙터클하게 펼쳐지는 비주얼적 전개가 돋보여지는 미학적 가치를 충분히 지녔고, 그 속에 내재한 철학의 심오함은 어른들이 보기에 도 손색이 없는 만화라서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찬 대작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참 고 문 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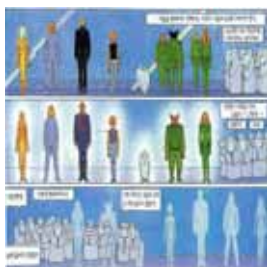
- [1] 피비우스그림, 조도로프스키글. “잉칼1,2”. 교보문고. 2000.
- [2] 윤홍섭 “심층심리학입문”. 계명 대학교 출판부. 1983.
- [3] 이만갑 “자기와자기의식”. 도서출판소화. 2002.
- [4] 함성호 “만화당인생”. 마음 산책. 2002.
- [5] 김성곤. “21세기문예이론”. 문학사상사. 2006.
- [6] Siegfried Elhardt. 윤홍섭역. “심층심리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 [7] 김종주, 김아영. “심층심리학입문”. 도서출판하나. 1988.
- [8] 다리안리더. “라캉”. 김영사. 2002.
- [9] 김성민. “융의심리학과종교”. 동명사. 1998.
- [10] 김용운. “카오스의 날갯짓”. 김영사. 1999.
- [11] http://cafe.naver.com/usstory.cafe?frame_url=/actitread.nhn%3Farticleid=30
- [12] 최세희 nutshelter@hotmail.com
- [13] <http://www.film2.co.kr>
- [14] <http://blog.naver.com/gingoba/80007341038>
- [15] <http://cafe.naver.com/feature/feature>
- [16] http://news.naver.com/print_fomphp?office_id=074&article_id=0000
- [17] <http://theology.co.kr/article/jung.html>
- [18] 온라인 문예. 인문교육 포털.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19] http://blog.daum.net/printView.html?articlenPrint_10869883
- [20] http://www.jabo.co.kr/sub_read.html?section=section=section2=&u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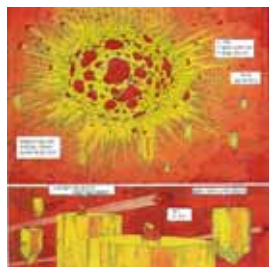
아르작



오르



거울단계



프랙탈

▶▶ 그림 2

11) http://www.jabo.co.kr/sub_read.html?section=section1§ion2=&ui...